

# 자동차산업

## 미국 자동차 재고, 금융위기 수준으로 회귀

### 자동차/부품/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 6098-6690  
Joonsung.kim@meritz.co.kr

### 2월 미국 자동차시장 정리

2월 미국 자동차 총 판매는 133만대 (-1.1% YoY)로 17년 들어 두 달 연속 감소세 기록. SAAR 또한 1,757만대 (+0.2% YoY)로 정체 국면을 이어가고 있으며, Selling Day는 25일로 전년동월과 동일했음.

양적 판매가 지난 16년 하반기 이후 Peak-out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제 질적 판매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Edmund에 따르면 지난 2월 신차 재고는 전년동월 대비 9% 늘어났으며, Days to turn (차량이 판매되기 전 딜러가 재고로 보유하는 기간)은 금융위기 영향권이었던 09년 7월 이후 최대 수준까지 상승. 신차 판매 둔화와 중고차 공급 급증 (지난 6년간 폭증했던 리스 판매의 부메랑)이 재고 압력을 높이고 있는 모습. 역사적으로 재고 증가는 반드시 인센티브 상승을 수반했으며, 이는 산업 전반의 수익성 악화 근거. 지난 2월 산업평균 대당 인센티브 지급액은 \$3,443으로 +14% YoY를 기록함.

### 현대차 5.3만대 (+0.02% YoY), MS 4.0% (+0.05%pt YoY)

주요 볼륨모델들의 판매 성과가 혼조세를 보이며, 전년동월과 유사한 판매실적 기록 (쏘나타 -16%, 아반떼 +33%, 투싼 -13%, 쏘렌토 +58%). 참고로 제네시스의 경우, 브랜드 변경 효과가 발현되지 못하고 있음 (G80: 16년 2월 2,976대 → 17년 2월 1,557대, G90: 16년 2월 286대 → 331대).

### 기아차 4.3만대 (-14% YoY), MS 3.2% (-0.5%pt YoY)

멕시코에서 생산 중인 K3 만이 소폭 증가 (+4%)했으며, 그 밖의 모든 모델 전년동월 대비 판매량 감소 (K5 -8%, 스포티지 -11%, 쏘렌토 -16%, 카니발 -47%, 쏘울 -35%). 특히 이 같은 판매감소가 인센티브의 급증 (+18% YoY)과 동반됐다는 점은 실망스러운 부분.

### 주요 브랜드별 YoY 판매볼륨 증가 폭

전체산업 -1.1%, 현대차 +0.02%, 기아차 -14%, 토요타 -7.2%, 닛산 +3.7%, 혼다 +2.3%, GM +4.2%, Ford -4.0%, FCA -9.9%, VW +13.3%.

###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3월 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 3월 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3월 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준성)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